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토포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아육정PD의 요리인류 키친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3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 1번지 55 바른말 고운말	10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 맛
⑫		00 KBS 뉴스 12	1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45 닥터 365 55 화창기행(재)
①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경력방송	05 VJ특공대	20 아하! 동물탐험대(재)	55 날씨와 생활
②		00 우리말 겨루기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추적 60분(재)	05 내꺼야 폭록 30 동물가족 체험기 외일드 패밀리(재)	00 네트워크현장 고현미 보인다
③	00 직언직설	00 명견만리 <북한 개방의 게이트를 선택하라> 55 튜튼생활제조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바다의 금동이 40 통일 전망대	00 SBS 뉴스 10 잘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④	20 해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공다공	25 MBC 일일특별기획 <임구정 백야>(재)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토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⑤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일교래피	10 터닝메카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파라이드 15 KBC저녁 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생활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⑦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턴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자! 따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정미>
⑧	20 갈때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반려동물 극장<단짝>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임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뉴스토리
⑨	3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	00 월화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⑪	00 모큐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청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5 우리동네 예제능	15 PD수첩	15 례메이트
⑫	10 나는 몸신이다(재)	30 독립영화관 <2015 전주 국제영화제 기획 1-세민과 나데르의 별거>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14:45 미연마이로트	19:30 EBS뉴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극한직업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큐 오늘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시계마을 타기독!	20:50 세계테마기행 <중국음식 기행 사전>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미술 탐험대	21:30 한국기행 <주왕산>
07:30 출동! 슈퍼왕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900개의 영혼 파푸아뉴기니>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6:30 볼이터 구조대, 뽀잉	22:45 리얼극장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곰피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자연의 색>
08:20 두다다콩(재)	13:10 글로벌 가족 정척기	17:00 WHO-위인극장(재)	24:05 지식채널e(재)
08:35 WHO-위인극장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EBS 인문학 특강
08:50 곰피와 친구들	13:50 꼬마 철학자 휴고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45 꼬마버스 타요	
09:2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09:35 이밤!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지파이터스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1-알짜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 1-알짜개념>
00:50 <고교 Basic Grammar-junior> <문학-알짜개념>	13:05 <고교 Basic Grammar-junior> <국어a>
01:40 <미적분 Ⅱ>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b>
02:30 <수학 Ⅰ>	14:5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
03:20 <미적분 Ⅱ>	15:40 <미적분 Ⅱ>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Ⅱ>	16:30 <수학 Ⅰ>
05:00 뉴탐스런 <물리 Ⅰ>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Ⅱ>
06:00 <생명과학 Ⅰ>	18:10 뉴탐스런 <물리 Ⅰ>
06:40 <동아시사사>	19:20 <생명과학 Ⅰ>
07:30 <윤리와 사상>	20:00 EBS 수능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a>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심층적의 수학 Ⅰ>	<화법과 작문 & 뜻서와 문법 A형>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a>	21:50 <문학A형>
11:00 <수학 Ⅰ>	22:30 최태민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EBS플러스2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20 <수학5-1>
07:30 불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6:50 <수학6-1>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7:20 초등과학 개념잡기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50 다큐 오늘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수학3(상)>
09:50 <수학1(상)>	18:40 <수학3(상)>
10:30 <역사2>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11:10 <국어③④>	20:00 EBS 기획특강
11:50 <수학2(상)>	20:50 EBS 기획시리즈 <자연의 색>
12:30 실천 취업가이드	21:40 EBS UCC 공모 나파디
13:10 등업신문 <수학1(하)>	22:00 등업신문 <과학2(하)>
13:50 <과학1(하)>	22:40 <수학 3(하)>
14:30 <수학2(하)>	23:20 필독 <사회1>
15:20 만점왕 <수학 3-1>	24:00 왕기초 중학 <수학2>
15:50 <수학4-1>	24:30 백점공략 <과학2(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8일(음 3월 10일 甲戌)

子	48년생 변화해야 할 때이니 과감하게 탈바꿈하자. 60년생 길한 기운이 모아지고 있으니 순조로를 것이다. 72년생 하루 종일 때 달리더라도 결실은 미미하다. 84년생 균형이 깨진다면 공든 탑도 무너지겠다. 행운의 숫자 : 92, 71	午	42년생 마음에만 담아두고 발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년생 정확하게 상응하는 이치에 놀랄 것이다. 66년생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백 번 낫다. 78년생 조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확실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58
丑	49년생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낫다. 61년생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라. 73년생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소중한 경험에 될 것이다. 85년생 이치에 부합하고 있는 지 따져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3, 94	未	43년생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알아야 한다. 55년생 불필요한 것이 상대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리라. 67년생 거시적인 관점으로 조망해야 대의를 도모할 수 있다. 79년생 집착만 가지고 판단 한다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1, 09
寅	38년생 작은 불행은 보이나 결코 커다란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50년생 실용적인 여건을 조성하자. 62년생 기반을 이휘가 는 면모이다. 74년생 호사다마 하는 세상의 이치를 알아. 86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행운의 숫자 : 57, 28	申	44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시험대에 오를 필요가 없다. 56년생 인간적인 관계 설정과 교감이 우선 되어야 한다. 68년생 조금 낮게 조정한다면 적중할 수도 있다. 80년생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32, 22
卯	39년생 막다른 처지이다. 51년생 한껏 멋 내고서 달밤에 홀로 걷는 격이다. 63년생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부터 가능해 볼 일이다. 75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소식이 들려오리라. 87년생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행운의 숫자 : 41, 521	酉	45년생 여과가 상당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나서자. 57년생 좋은 이웃은 멀리 있는 형제보다 훨씬 낫다. 69년생 밤심 한다면 상대의 시험에 빠져들 수 있으니라. 81년생 당당하게 나아가서 뜻을 펼쳐도 될 때다. 행운의 숫자 : 77, 47
辰	40년생 길짐이 보인다. 52년생 안정을 찾는 데는 일정 정도의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64년생 한 곳에 집중시킨다면 통일성을 갖게 된다. 76년생 가장 결실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3, 18	戌	46년생 해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니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으니라. 58년생 연결 고리가 잠으로 부실하다. 70년생 이중성을 띠고 있으니 혼동할 수 있겠다. 82년생 현명하게 처신해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2, 84
巳	41년생 가닥이 잡히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53년생 미래 지향적인 안목이 절실하다. 65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번잡하고 가혹한 곳에 임하리라. 77년생 지금 굳이 포망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행운의 숫자 : 68, 371	亥	47년생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도래 하였고 다. 59년생 외부는 시끄러워도 내부는 평온할 것이다. 71년생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해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 83년생 적응하라고 논리 하자. 행운의 숫자 : 88, 9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사진 제공 SBS 'K팝스타'

“그룹 빅뱅과 계속 함께 하고 싶어”

계약 연장 희망 밝힌 YG 양현석 대표 ... “씨엘 미국 데뷔 앨범 준비 끝”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내년 중순계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빅뱅과의 계약 연장 희망 의사를 밝혔다. 또 빅뱅의 멤버 일부가 군에 입대해도 그룹 유지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 대표는 26일 밤 빅뱅의 서울 콘서트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빅뱅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이돌그룹의 수명이 4~5년에 불과했다. 그때 오라가는 그룹을 만들겠다며 빅뱅을 시작했는데 9년간 유지한 자체로 그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9년을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빅뱅과 전속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빅뱅과 YG의 전속계약은 내년 중순계 만료된다.

그는 빅뱅은 멤버 개인의 솔로 활동 비중도 큰 만큼 일부 멤버들이 군대에 간다고 해도 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이런 빅뱅 앨범도 3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그동안 태양 등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명까지는 입대한다고 해도 팀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빅뱅의 ‘롱런’ 비결에 대해 “좋은 음악, 5명 조합의 매력, 이들의 실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내가 한 게 없다”고 겸손한 답변을 내놨다.

빅뱅이 이날 공연에서 공개한 새 앨범 수록곡 ‘루저’와 ‘배배’에 대해 양 대표는 “내가 루저였을 때가 생각나서 마음에 들었다”면서 “다음달 발표하는 앨범은 음악적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빅뱅은 다음달부터 8월까지 매월 1일 싱글 음반을 발표하고 9월 달간의 발표곡을 묶어 9월 1일계 앨범 ‘메이드’(MADE)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양 대표는 “최근 음반 소비 형태를 보면 타이틀곡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 가수나 제작자 입장에서 허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처럼 색다른 음반 공개 전략을 세운 배경을 설명했다.

양 대표는 “매달 2곡씩 내고 1곡 이상은 뮤직비디오를 찍을

계획”이라면서 “가급적 많은 곡을 만들고 싶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양 대표는 빅뱅 외 다른 팀들의 연내 컴백 일정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미국 데뷔를 준비 중인 씨엘의 앨범이 모두 완성돼 올여름쯤 발표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씨엘의 앨범 준비가 다 끝나 뮤직비디오 회의 중이다. 미국에서 먼저 활동하고 결과가 좋은 안 좋은 추후 투에 나일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씨엘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투에니원의 미국 진출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씨엘이 잘 되는 것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면서 “씨엘을 통해 투에니원이 알려질 수도 있다. 박봄과 산다라박도 영어를 잘한다”고 덧붙였다.

YG가 새롭게 만든 보이그룹 아이콘도 빅뱅의 뒤를 이어 조만간 데뷔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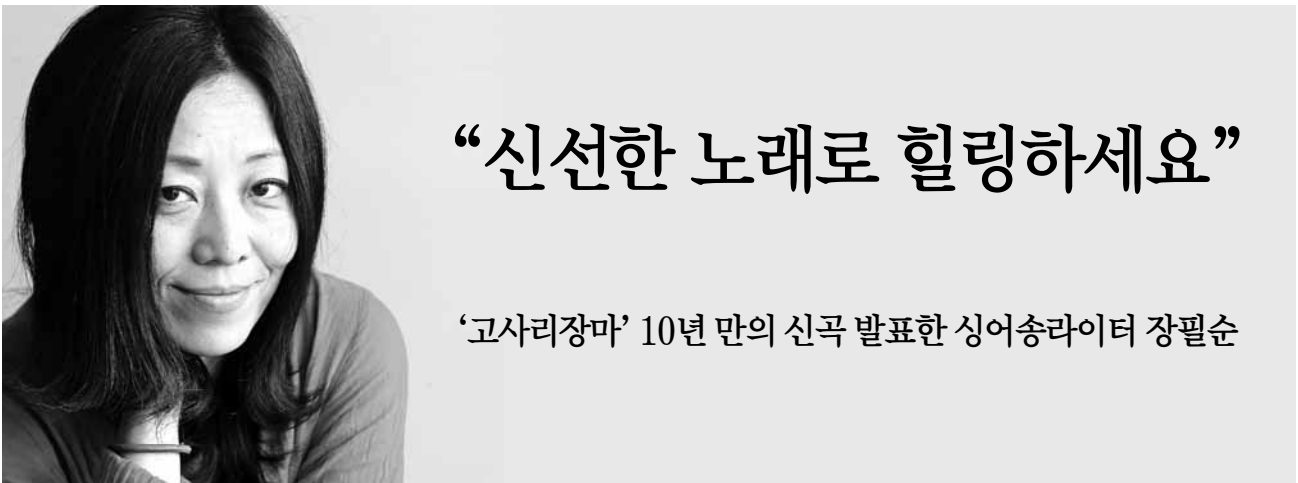
양 대표는 “다른 가수들도 많지만 될 수 있으면 빅뱅 다음에 아이콘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악동뮤지션 등 다른 소속 가수들의 음반도 현재 작업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양 대표는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SBS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스타’ 출신 가수들 사이에서 YG의 인기가 높은 것에 대해 “YG가 아티스트를 잘 키우는 점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YG의 색깔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수만의 색깔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면서 “저 자신이 제작자이기에 앞서 팬이다. 소속 가수들의 신곡을 들으면 설레네”고 말했다.

소위 3대 기획사로 손꼽히는 SM엔터테인먼트나 JYP엔터테인먼트와의 비교에 “SM은 잘 만드는 회사이고, JYP는 가족같은 분위기가 강점이다. 우리는 자신의 곡을 직접 만드는 가수들을 잘 뒷받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신선한 노래로 힐링하세요”

‘고사리장마’ 10년 만의 신곡 발표한 싱어송라이터 장필순

제주에는 봄비의 강도가 센 편이다. 거센 바람과 함께 며칠씩 비가 쏟아진다. 비로소 날이 갠 아침이면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앞들이 습기를 머금은 이때 숲에 가면 손가락 굵기만 한 고사리가 지천이다. 봄비를 맞고 훌쩍 자란 것이다. 제주에 사는 싱어송라이터 장필순이 들려준 이야기다. 제주사람들은 고사리가 한 뼘씩 자라는 짧은 봄장마를 ‘고사리장마’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고사리장마’는 그가 최근 발표한 신곡 제목이기도 하다. 이 곡은 그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싱글 프로젝트 ‘소길1화(7화)’의 첫 곡이다. 때월 한 곡씩 발표해 차곡차곡 쌓아 8집 ‘수니 8’에 담을 예정이다.

그는 “디지털 싱글을 내는 게 처음인데 제겐 안 맞는 느낌이 었다”며 “주위 음악 하는 후배들이 ‘채소도 신선한 게 좋듯이 음악도 작업을 바로 끝냈을 때 들려주면 감흥이 다를 것’이라고 말해주 앨범 한 장을 위해 음악을 묵히지 않고 들려주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터를 잡고 산지도 오는 7월이면 만 10년이다. 올해 서울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5년 7월19일 집에 장판 깔고 도배한 뒤 22일에 입주했으니 딱 10년이네요. 지금은 개 6마리를 키위 근처에 사는 (이)호리보다 더 많아졌어요. 200평 되는 뒷밭에서 토종 상추, 토종 고추 등 갖은 채소를 키우고 마당에도 나물 씨를 뿌렸어요. 지금이 한창 발일이 많아 씻어도 손톱 밑이 까매요. 하하.”

이적은 1년 반 전 이곳을 들렀다가 장필순에게 “누나에게 어울리는 곡을 썼다”며 노래 하나를 선물했다. 이적이 장필순의

집 거실에서 통기타 반주에 맞춰 불러준 곡이 ‘고사리장마’다. 패니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이적과의 작업은 처음이다.

노래 녹음은 늘 그렇듯이 홈레코딩으로 완성했다. 박용준의 피아노가 도드라지는 가운데 ‘허스키하다’고만 표현하기엔 부족한 장필순의 ‘싸한’ 음색이 실려온다. 마치 힐링뮤직 같다.

그는 “욕심을 덜어내는 게 배웠다”며 “예전엔 기타 치는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 연주 잘하는 후배들이 많으니 그런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농사 욕심은 생기더라. 고추 모종을 심어 놔는데 어느 날 보면 훌쩍 자라 신기하고 성취감이 있다. 농약 안 치고 키워 이웃들 나눠주고 서울로 보내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10년간 시골에 파묻혀 살다 보니 그도 반 농사꾼이 됐다. 재봉틀 없이 바느질로 옷을 지어 입고, 화려한 구두보다 밭에서 신기 좋은 장화 애기에 귀가 더 솔깃해진다. 먹고 맛을 느끼기 나물 이름도 꽤 익혔다. 뒷밭 얘기를 할 때면 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전원생활이 이상적이었을까. 이후 이호리, 루시드폴 등 많은 뮤지션이 제주로 터를 옮겼다. 배우 류태호,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 연극을 만든 김태웅도 이웃이 됐다.

신곡을 선보이는 싱글 프로젝트와 별개로 그간 발표한 앨범곡, 드라마 OST 곡 등을 다시 편곡하고 녹음해 베스트 앨범 ‘수니 리워크 1’(Soony Rework 1)을 발표한다.

이 앨범 수록곡들 역시 이달 말 ‘제비꽃’을 시작으로 한 곡씩 꺼내 보인다. 그의 과거와 현재를 한 지점에서 만나듯 신곡(新舊) 곡을 선보이는 싱글 프로젝트가 두 트랙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연합뉴스